

자동차 회사들과 자동차 전문가들의 거짓말

TV,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에서 접하는 자동차 회사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태연하고 당당하게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한다. 뿐만 아니라 소위 저명한 자동차 전문가라는 분들까지도 외견상으로는 소비자를 위하는 척 하지만 역시 편파적으로 자동차 회사를 두둔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나 학자적 양심까지도 저버리고 노골적으로 자동차 회사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도 많이 보인다.

자동차 회사들이 하는 거짓말은 종류가 무수히 많지만, 두 가지 큰 거짓말이 있다. 하나는 차량 결함에 대한 거짓말이고, 다른 하나는 신차 사기 판매에 대한 거짓말이다. 지면 관계상 오늘은 우선 자동차 회사의 결함 시정과 관련한 거짓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 한다.

차량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차 회사들이 해명은 해야 하겠고 잘못을 시인하기는 싫으니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자동차 회사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 전문 지식이나 업계 관행을 잘 모르는 대다수 일반 소비자들은 긴가민가하면서도 그냥 넘어가게 된다. 물론 그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는 자동차 전문가들도 많겠지만 대개는 본인도 직접 연관이 없는 일에서 자동차 대가업을 상대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지 않는다. 연맹에서 검출해 여러 번 해 보았지만 이런 거짓말의 경우 여러 부서의 담당자들이 검출해 출두하여 서로 타부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의 행위 주체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대개 무혐의 처분으로 끝이 내버린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들의 이런 거짓말들이 크게 이슈가 되어서 결국은 민형사상으로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이정주 칼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

고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의 뇌에서 잊혀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자동차 회사는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면 역시 또 다른 거짓말들을 반복하는 것이다.

차량 결함이나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고, 시정하겠다고 한다면 소비자들이 이해를 해 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기에는 자동차 회사의 자존심이 허락이 않는 모양이다. 아니, 그보다는 시인에 따른 비용 지출을 먼저 따지고 이미지 추락을 원치 않으니 필연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까다롭고 똑똑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웬만한 거짓말들은 직감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불신의 벽은 높아만 간다.

차량 결함을 인정한 경우,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든 리콜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아니, 리콜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눈물겨운 노력을 한다. 리콜을 하게 되면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하고, 개별 우편 통지도 해야 하고, 리콜 전 1년 이내에 자비로 수리한 소비자에게 대한 보상도 해야 하는 등의 많은 책임이 따르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생각해 낸 것이 캠페인이라는 용어였다. 불량 부품 교환 및 수리를 해 주는 것을 캠페인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선심

이라도 쓰는 듯 포장했다. 소비자들에게는 개별 통지도 하지 않고 찾아오는 소비자들에게만 수리를 해 주는 소위 물래 리콜이 비일비재했다. 연맹에서 "캠페인이라는 말은 통상 사회적 운동에 사용하는 말인데, 차량 결함 시정이 스마일 캠페인이나 경기 캠페인, 자축 캠페인과 같은 사회적 운동이냐?"고 질책하였더니 이제는 무상수리라는 말을 쓰고 있다.

"제작결함은 무상수리가 당연하지 돈을 받고 제작 결함을 시정해 주는 경우도 있느냐?"고 물었지만, 여기에는 아직도 답변을 못하고 계속 무상수리라는 말을 쓰고 있다. 마땅한 용어를 못 찾은 모양인데, 앞으로는 근거도 빈약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캠페인이나 무상수리라는 말을 폐기해버리고, 솔직하게 결함을 인정하고 자발적 리콜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주기 바란다.

자동차 회사들의 거짓말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나 전문가들이 보면 허접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참피하지도 않은가?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라 신경을 안 쓰는가? 점유율 80%를 상회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현대/기아자동차부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국산차, 수입차를 불분하고 어느 자동차 회사 하나 수직인 회사가 없는 실정이다. 자동차 회사들의 잘못이나 실수는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거짓말에는 참고 속아주기 어렵다. 요원한 일로 보이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더 이상 국내 소비자들을 우습게 보고 거짓말로 우롱하는 모습을 보며 눈살 찌푸리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만약 자동차 회사들이 본 칼럼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한다면 얼마든지 구체적 사례들을 거론하며 입증해 줄 수 있다.

장 16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30분,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2-2227-7584

△우두영(전 청구여자사법대학 사무처장)씨 별세, 우근학(전 청구 운호교 교장)·우근남·우근신(국선도 청구 율량수련원장)·우주형(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사무관)씨 부친상, 안정인·오혜숙·조선옥씨 시부상, 김선철(전 일신여중 교사)·김동욱(동신유통 대표)씨 장인상, 우경희(머니투데이 산업1부 기자)·우성희(우정우치원 교사)·우정화·우연희(LG생활건강 사원)·우찬희씨 조부상, 양승이씨 시조부상 = 4일 오전 10시50분, 청구성모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6일 오전 9시, 043-210-5180

인사 보건의료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정재욱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승진 △김대길 △김재현 △김종욱 △김종현 △김호규 △남우석 △명봉호 △민대홍 △박주현 △변영선 △소주현 △송태호 △신상우 △여운하 △이승훈 △이영배 △이형민 △이효진 △전진우 △정은경 △조승재 △한지용 △홍순욱 PwC 컨설턴트 ◇신임 파트너 영입 △김두희 △박소현 △정경인 △최재열 △홍태경 총목보과과학대 △부총장 최병철 대구한일대 △시설관리팀장 황훈목 △대외협력지원팀장 겸 국제교류팀장 손영훈 △감사팀장 주일권 △취창업지원팀장 겸

대학일자리센터 팀장 전병찬 △총무팀장 김영길

부고 △전범업씨 별세, 소정섭(알렉산드르드파리 한국지점 대표)·소 섭(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사무관)씨 모친상 = 4일 오전 4시2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6일 오전 5시30분, 장지 전북 임실군 덕치면 선영, 02-3410-6912

△최승수씨 별세, 최희봉·최응환(CKP회계법인 부대표·국세번호사)·최성환(인천우리병원 진료부장·정신과 전문의)씨 부친상 = 4일 0시2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

사설

참담한 '역성장 쇼크' 성장과 소득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4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수치보다 0.1% 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또 전 분기 대비 -0.4% 성장률은 2008년 4분기(-3.2%) 이후 41분기만의 최저치다. 국민총소득(GNI)도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 역시 40분기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이는 성장과 분배를 모두 잡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가 작동 불가능하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 쇼크'를 맞게 된 것은 수출을 비롯해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하는 가운데 소비마저 부진에 빠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각종 지표가 나빠진 탓에 올 2% 중반 대 성장달성도 불안한 상황이 됐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하고 있다. 올 성장률이 전망대로 가려면 남은 분기 평균 1.2~1.3%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지만 대내외 여건상 쉽지 않아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미·중 무역 분쟁 격화, 반도체 수출단가 하락 등 대외적 변수를 커버해야 할 내수마저 부진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총소득(GNI)이 감소하면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소비·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도 전기 대비 1.4% 감소했다. 소비를 할 여력이 저하되면 기업들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결국 투자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해 성장률을 저하시킨다.

특히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있다는 것은 현 정부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2년 이상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되레 전체소득이 줄어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같은 소득과 성장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을 거듭할 시간이 없다. 성장지 소득을 견인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지혜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 77%가 '국회의원 퇴출 장치'에 찬성하는 현실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과 '문 대통령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동' 등 시 추진을 제안한데 이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처리 원칙'이라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여야는 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처리에 '합의처리 노력'과 '합의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20대 국회 마지막 해인 올해 국회는 온전히 열려 본 적이 없다. 여야 합의로 국회 분위기가 열린 것은 3월 임시국회가 유일하나 일부 비정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1월과 4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로 끝났고 2월과 5월엔 소집조차 없었다. 또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해 명시돼 있는 6월1일 임시회소집도 감감무소식이 다. 입법기능이 마비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예산안·결의안 등

의안은 2만930건, 그 중 1만4820건이 계류돼 있어 국회의 처리율은 29%에 불과하다. 역대 가장 일을 안 한 국회로 꼽히는 19대 국회(42%)에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7.5%에 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청원 글도 20만명을 넘어선 지 오래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려는 민심은 이제 실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생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경제지표는 갈수록 추락하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회무용론 촛불이 꺼지지 않을까 두렵다.

아시아타임즈 www.asiatime.co.kr 대표 전화 (02) 801-1800 팩스 (02) 801-1819

발행 대표이사 조용하	사장 겸 편집국장 임춘성	주필 강현직	인쇄인 이정자
2013년 7월 1일 창간 2013년 1월 10일 등록번호 서울 가 0982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편집장 권정국 (02) 801-1814	사회부 (02) 801-1861	생활경제부 (02) 801-1863	문화부 (02) 801-1861
편집장 권정국 (02) 801-1850	산업부 (02) 801-1855	변집부 (02) 801-1851	편집부 (02) 801-1851
팩스 (02) 801-1859	금융증권부 (02) 801-1823	건설부동산부 (02) 801-1852	국회부 (02) 801-1822
정치경제부 (02) 801-1823	건설부동산부 (02) 801-1852	윤집부 (02) 3666-0041-3 (외주 인쇄 가)	
(우)100-01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1길 27 프리임빌딩 8층 구독료 월 5,000원 1년 60,000원			
사외(외국)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ww.Gajagolf.net

Gaja Golf

가자골프(주)에은항공여행사

02)365-8226

가자골프 예약특전!!

- ★고급 항공케비 제공★
- ★고급 골프볼 증정★
- ★조기예약할인 45일전 7%, 30일전 5%★

GAJAGOLF는 더 큰 만족, 더 큰 즐거움을 위해 좋은 상품만을 제공합니다. GAJAGOLF의 전 상품 가격에는 유류할증료, 각종 TAX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루스츠 골프&리조트

루스츠 골프 4일(63홀)

매일출발 **990,000~**

해피밸리 골프&리조트

해피밸리 골프 4일(72홀)

매일출발 **1,090,000~**

샤포로 시내호텔+3색 골프

시내호텔+3색 골프 4일(54홀)

매일출발 **1,350,000~**

가자골프 창사 15주년 기념

고객 사은 대잔치

특가 상품 대방출

일본 가고시마 명품 2색 골프

가리시마온천&골프 3일(45홀) 6/10 출발 **599,000**

가리시마온천&골프 5일(99홀) 6/10 출발 **999,000**

일본 가고시마 케도인 골프&리조트

케도인 골프 3일(36홀) 6/17 출발 **699,000**

케도인 골프 5일(72홀) 6/24 출발 **1,049,000**

BEST of BEST

일본 남큐슈 골프의 다크호스

일본 가고시마 가리시마온천&명품골프

가리시마온천&골프 3일(45홀) 월,수,금 출발 **699,000~**

가리시마온천&골프 4일(72홀) 일,금 출발 **899,000~**

가리시마온천&골프 6일(126홀) 일 출발 **1,299,000~**

일본 가고시마 골프의 베스트셀러

케도인 골프&리조트

케도인CC 3일(36홀) 월,수,금 출발 **749,000~**

케도인CC 4일(54홀) 일,금 출발 **949,000~**

대한항공전세계 확장 6/6~10/24 주 2회

베트남 달랏 3색 골프

달랏 3색골프 5일(54홀) 목,출발 **1,350,000~**

달랏 3색골프 6일(72홀) 일,출발 **1,490,000~**